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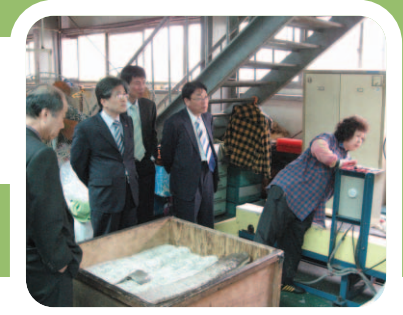
소비자의 욕구 반영 위한 산지 포장, 선도 유지 중요

협회가 후원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주최 · 주관한 ‘수산물 포장규격화와 효율적 유통구조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4월 1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농어민신문사 윤주이 상무가 좌장을 맡은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한홍교 유통정책과장이 ‘수산물 유통정책 방향 및 표준화 방안’이라는 기초발제를 했으며 대형선망수협 김임권 조합장, 강동수산물중도매인 조합 최병란 전무, 수산경제연구원 조용훈 박사와 당 협회 최주섭 부회장이 토론에 참가하여 진지하고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기초발제를 통해 해수부의 한홍교 과장은 변화된 유통환경 속에서 정부는 유통단계별로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는데 힘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지 위판장 거점화 추진, 대형 수산물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통한 새로운 유통모델 구성, 수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추진 등을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또한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이력추적제 및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산물 물류표준화 확대를 위해 어상자 구입비 지원, 규격 출하 소요자금 지원 추진과 아울러 지역 · 어종별 특성과 소비패턴에 부합하는 자율적 포장화 추진 의지도 밝혔다.

토론에서 협회 최주섭 부회장은 현재 수도권 도매 시장에서 사용된 수산물 스티로폼상자의 3분의 1이 다시 산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수산물상자의 재사용이 위생 문제 등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웰빙바람에 따른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상자 개발, 물류 현대화를 위한 스티로폼 상자 제조업체의 끊임없는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 69%에 달한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실적이 보여 주듯 스티로폼 수산물 상자의 재활용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김임권 조합장은 수산물 유통에서의 규격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증하고 있는 수입 수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선어나 활어의 유통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지에서 직접 3kg 5kg단위 소포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란 전무 역시 수산물을 산지에서 소포장을 한 뒤 대포장을 하면 유통거래 자체가 공산품화 돼 신선도와 상품가치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점을 감안 수산물의 유통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용훈 박사는 유통구조개선 방향으로 다양한 거래형태에 따른 소포장 개발과 판촉위주의 포장연구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산물의 산지 포장을 역설하며 아울러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화나 상업 포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스티로폼 원료업체 및 가공사의 담당자들도 참석해 스티로폼 수산물상자 규격화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간담회 후 참석자들은 부산시 연제구청 재활용센터를 방문 스티로폼 재활용현장을 견학하고 현황 취취를 통해 스티로폼 수산물상자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본 간담회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KBS제1라디오에서도 토론 참석자들을 연결한 라디오 토론회를 <농수산 정책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5월 19일 아침 방송했다.